

**아든만 연안지역의 복식문화 동질성 연구**  
- 혼 지역과 아라비아 지역의 부르가를 중심으로 -

김 문 숙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Homogeneity of Costume Culture in  
the Coastal Areas of the Gulf of Aden**  
- Focusing on the Burga of Horn and Arabia -

Moon-Sook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ighlights the homogeneity in the heritage of the costume cultures between the Gulf of Aden, a part of the Horn region of Africa and the Arab region of West Asia. Specificall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s used to examine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regions based on their (1) geographic living cultures and (2) the use of a costume accessory called Burga-a face veil.

The current trend in research on the traditional costume culture of Africa mostly ties art with the traditional costume culture and examines its from an aesthetic or animalism perspective rather than from a cross cultural perspective.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 in this area,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iews and pictorial analysis to analyze costume cultures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The Burga, which is worn in the low lands of the Horn region, which is located between the West Asia and African continents, as well as the Arab region, shows a reciprocal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regions. Similarities can be found in the shape, design, decorative elements, and the way the Burga was worn in two regions. Although the Burga as a face veil is only a small part of a costume, it reaffirms the similar living cultures and ge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two regions.

As the living culture environment becomes similar around the world, this study should help with cross culture negotiations as well as further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costume research.

**I. 서 론**

우리는 변화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고, 변화만이  
현재사회의 발전 기저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수많은 것이 낡아서 떠나가

고 새로운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낡은 것이 새로  
운 것으로 대체되는 변화가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로 인식해야 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단풍잎  
이 새 잎으로 대체되는 일을 단순한 변화로 인식하  
지 말고 그 기저에는 나무의 몸체와 뿌리가 가치를  
지속시키고 있는 변화를 수용하고 있음이며, 이는 곧

본 연구는 200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임.

문화 유산이란 가치를 축적시킨 변화로 보아야 한다. 이런 변화를 지속하고 있는 복식도 착용된 사회의 기후, 풍토, 종교, 관습의 차이에 따른 생활양식은 물론 사회적 역사적 배경의 상이함에 따른 생활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변화의 기저에는 문화적 유산이 있고, 이 문화유산이 간직되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라는 인식 속에 특히 아프리카의 재료문화가 현대 문화에 미치는 공헌 등에 대하여 세계 석학들이 최근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sup>1)</sup>.

호벨(Hoebel)의 정의에 따르면, 복식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측면은, 복식형태의 의미와 그 선택에 관한 문화적인 모든 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단지 각 부분기능의 총합이라기보다는 각 부분을 결정하는 통일체라는 입장인 전체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sup>2)</sup>.

최근의 연구추세는 역사적, 민족 문화적 특징, 또는 비교문화 차원에서보다는, 오히려 민속복식예술을 통한 미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비교문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 결과를 얻어 보자는데 기본 틀을 두었으며, 지리적, 풍토적, 정치적이던 간에 역사를 통해 종교적으로 회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혼(Hom) 지역과 서아시아의 아라비아(Arabia)지역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였다.

연구를 하려는 지역은 종교 민족 문화적 다양성이 관념적 영역 속에 혼재되어 있어 확연하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지역의 문화형성을 조명함에 있어서는 첫째는 잘못된 인식된 외부적 영향의 중요성, 둘째는 잘못된 전래되고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의 폐쇄된 세계관, 셋째는 서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의 혼 지역은 지리적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떨어져 있고 인종적으로도 구분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자생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전제로 다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점차 유사해져 가고 있는 문화 유산의 변화와 동질성을 비교문화 차원에서 베일 장식과 생활문화를 통해 조명해 봄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으로 동양과의 연

결고리로서 오랜 세월 동안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혼 지역의 생활문화 속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얼굴가리개 베일장식인 부르가(Burga)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부르가를 통해 양 지역의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구는 먼저 생활문화와 베일장식의 관계를 조명한 다음, 베일장식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혼 지역과 아른만에 접해 있는 아라비아 지역을 구분 각각의 문화내용과 특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얼굴가리개 베일장식인 부르가를 통한 아른만 양안지역의 문화 동질성을 규명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실존자료를 접하기에는 한계 등이 있어 주로 문헌자료에 의존하였다. 물론, 연구는 이제까지 복식연구에 있어 지배적인 형태론적 접근도 함께 하면서 자연환경,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접근도 시도하는 복합적인 전체론적 접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연구는 때로는 체계적인 계통을 잡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부연한다.

## II. 베일(Veil)장식과 생활문화

얼굴 가리개인 베일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적으로 사막이란 자연환경적 특성과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특수상황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주로 서아시아지역에서 흔히 착용되고 있는 복식이다. 그러나 쓰개로서의 베일장식이, 자연환경적 특성과 종교적 특수상황이 다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동 아시아 국가 등의 지역에서도 착용되고 있음을 볼 때,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 자못 우리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베일(veil)은 장식 또는 가리는 목적으로 망사(net), 레이스(lace) 등과 같은 가볍고 투명한 옷감으로 만든 피스로 여성 등이 머리 위에 또는 얼굴에 착용하는 장식복식이다. 상이한 길이로 만들고 있는 베일은 모자에 타이트하게 부차 착용하거나 또는 20세기

1) John Mack, *Africa, Arts and Culture*, The British Museum Press, London (2000), pp.9-10.

2) Damhorst, M. L., Miller, K. A. & Michelman, S. O., *The Meanings of Dress*, Fairchild Publication, New York (1999), p.3.

에는 모자의 챙에 늘어지게 매달아 착용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발전된 베일은 오랜 역사가 있으며, 전통적으로 흰 색은 신부들이, 검정 색은 상(喪)중에 착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3)</sup>.

쓰개로서의 베일의 역사는 기원전 12~13세기경의 앗시리아법전<sup>4)</sup>과 기원전 2~3세기부터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무역 루트 상에 있는 팔미라(Palmyra)의 벨(Bell)사원에서 발견된 부조(浮彫)<sup>5)</sup> 등을 비롯한 여러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복식으로의 자리매김에 상당한 역사가 있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벨사원의 부조 등으로 유추 해석한다면 커다란 보자기나 감싸개(wrap)와 같은 형태라고 생각된다. 이런 역사 속의 베일은 문화와 지역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면서 현재는 동서양 모두가 일상복으로 또는 특정 경우에 착용하고 있다.

쓰개는 의복형쓰개, 머리쓰개, 얼굴쓰개 등으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며, 아시아지역, 아프리카지역에서 그 착용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쓰개를 착용하게 된 동기는 자연환경적 요인인 인체의 보호 목적, 종교적 요인인 영적인 보호 내지는 정숙성의 표시, 그리고 사회적 요인인 신분 권위의 과시 및 미적인 요구 등이라고 하겠다. 이런 동기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형식의 쓰개를 계승 발전해 왔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범위로 정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베일을 머리와 함께 얼굴을 가리는 길며 커다란 쓰개를 총칭하는 장식 복식이라고 하겠다. 베일장식 중에는 얼굴가리개의 역할만 하고 있는 얼굴베일이 있는데, 문헌기록에 의하면 얼굴가리개에 관련된 용어는 부르가, 밀파(Milfa), 마스크(Mask)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형태적 특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부르가는 얼굴을 눈 아래부터 가리는 베일장식(그림 14)이며 밀파는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리는 베일장식(그림 10)이며 마스크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장식(그림 5)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밀파와 마스크를 동일하게 사용

하고도 있다.

아프리카의 도처에서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유복 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에서도, 훌륭한 미와 스타일의 주제를, 특히 이런 미와 스타일에서 특별한 장인적 솜씨를 발견할 수 있다.

장식적 문신이나 그림 등으로 인체를 장식하고 또 머리를 땀거나 우아하게 위로 언저거나, 동물의 지방, 진흙 등으로 얼굴을 화장하고 있는 남성 여성 모두에서 위대한 가치가 있는 이런 장식적 주제를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생활문화에서의 베일장식은 첫째, 시각적으로 너무 띄기 때문에 훌륭한 장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 장식을 통해 가치와 신념, 성취욕과 신분상태를 토해내고 있으며, 둘째, 이 장식은 의식이나 축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셋째, 자연환경, 병마, 악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학자들은 남아프리카 줄루(Zulu) 부족의 구슬의 색상에 따른 여러 가지 의미의 부여, 아이보리코스트의 로비(Lobi)부족 여성의 입마개, 북부 사막지역의 베르베르(Berber)부족의 금속에 따른 의미부여 등을 들고 있다<sup>6)</sup>. 아프리카 부족의 천부적인 위대한 유물과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대한 가치에 관한 주제의 연구와 발전은 곧 새로운 상상을 유발시키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하겠다.

기후, 풍토, 종교, 관습 등에 따른 생활양식 나아가서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 등이 포함되는 생활문화가 베일장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들 부족들은 왜 그런 디자인을 창작했을까? 디자인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왜 그런 장식을 하였을까? 왜 서로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하였을까? 이런 디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을 주장하고 있어 정말 흥미 있는 일이다. 불행하게도 이들 부족은 기록할 문자가 없었고 훨씬 후세 학자들의 기록이나 발견 유물을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 해석도 해보는 한계를 받듯이 인식해야 하는 전제를 부연한다.

3) Charlotte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Fairchild Publications, Inc., New York(1975), pp.525-526.

4) Jastro, Morris, *Veiling in Ancient Assyria*, *Revue Archeologique* X IX(1921), p.212.

5) Seyrig, H., *Bas reliefs monumentaux de Temple de Bel a Palmyra*, *dens Syria* IV(1934), p.155.

6) Angela Fisher, *Africa Adorned*, Harry N. Abrahams Inc(1984), New York pp.107-111.

### Ⅲ. 아프리카의 혼 지역과 서아시아의 아라비아 지역 문화의 특성

아프리카의 혼 지역은 홍해, 아든만(Gulf of Aden), 및 인도양에 접해 있는 아프리카대륙의 북동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아든만에 접해 있는 아프리카의 이 지역은 그 모양새가 아프리카 소의 뿔 모양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지역에는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지부티 등 여러 국가가 있다(그림 1).

역사적으로 혼 지역을 포함한 북동 아프리카는 복합적인 지중해 교차지로 고대시대부터 인접 유럽과 서아시아의 아랍제국과 연결되어 왔다. 특히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악슈미트(Aksumite)왕국이 서아시아의 아랍국가인 예멘에 기지를 설치하였고, 홍해연안의 동 아프리카해안과 서인도양의 여러 섬들의 역사는 아랍연안과의 해상연결로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sup>7)</sup>.

물론 논쟁의 쟁점이 되겠지만 문화적인 동질성이 있는 혼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은 생활양식이나 종교가 명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 특이한 현상이 있다. 이런 현상은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의 콥트교<sup>8)</sup> 문화와 홍해, 아든만 및 인도양에 접해 있는 해

안 저지대의 이슬람 문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일찍이 콥트교로 전향한 고원지대의 부족은 지형적으로 험준한 산악 장벽으로 외부세계와는 격리됨으로써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고 동시에 이슬람의 전파를 막을 수가 있었다. 물론 험준한 고산지형 덕분에 종교적으로는 부족을 감화, 고취시킬 수는 있었지만 부족한 물자로 생활양식과 장식은 비교적 단순한 스타일을 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안 저지대의 부족은 아라비아, 인도 등과의 교역으로 이슬람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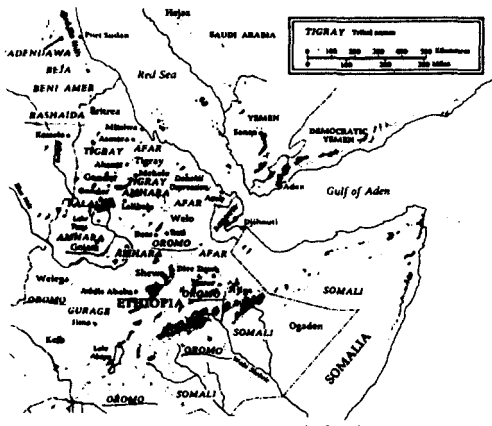
아라비아의 무역상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혼 지역을 통해 아라비아로부터는 도자기, 복식, 보석 무기를, 혼 지역으로부터는 상아, 코뿔소의 뿔, 거북의 등딱지, 향기 껍 등을 교역하였다. 특히 소말리아의 해안지역은 무역상의 교역에 더하여 아랍인, 포르투갈인, 프랑스인 등의 이주로 아프리카 부족과 수세기에 걸쳐 함께 공생함으로써 문화 믹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리학적으로는 혼 지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북으로는 수단에서, 남으로는 탄자니아와 접하고 있는 인도양의 켄지바르(Zanzibar)섬까지의 동부 해안 지역을 일부 학자들이 굳이 혼 지역에 포함시키는 이유도 무역으로 아라비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sup>9)</sup>.

무역교류는 아라비아 생활방식을 선호하게 하였고, 자연스럽게 이국적인 아라비아 복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배일장식도 전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부티, 소말리아에서는 여타 지역과는 달리 배일장식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 1. 아라비아지역의 배일장식

사막과 민둥산으로 이루어진 볼모지가 대부분인 아라비아 반도는 홍해와 아든만을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의 혼 지역과 대안을 함께 하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접하는 지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아랍에미리트연방, 오만 등 제 국가가 있



<그림 1> 혼 지역 지도

7) John Mack, *op. cit.* p.13.

8) Coptic Christian : 이집트의 재래기독교. 7세기 아랍의 정복이 있기 전 이집트사람을 회람어로는 Aigyptios(아랍어: Qibt) 서양에서는 Copt)라고 칭하는데서 비롯됨.

9) Angela Fisher, *op. cit.* p.267.

다. 이슬람법을 추종하고 있는 이 지역은 열대성 기후대에 속하며 남녀 모두가 전통 옷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입고 생활을 한다. 물론 지역마다 다양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성들은 대부분 머리에서 발목까지 온 몸을 완전히 가리는 전통복식을 착용한다<sup>10)</sup>. 이런 전통복식에서 여성들이 베일장식을 착용하고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가 있다.

이슬람의 근본원리에는, 정신적인 부흥운동의 일환으로써 서방세력의 지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 착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복식에도 이런 의식이 명시되고 있다. 그러나 복식 중 얼굴 가리개인 베일장식은 이슬람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복식 요소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베일장식의 역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옛 아시리아 시대부터 알려졌고 기록적으로는 B.C. 1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슬람 역명 이후로는 베일장식이 정숙과 존경의 징표로 여겨 왔으며,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베일 착용에 있어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반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제한적 형태의 드레스로 부활되었고 요르단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덜 하기는 되었지만, 아랍계국에서 단일화되게 한 요인은 종교적인 이유에 더하여 역시 기후조건에 있다고 하겠다<sup>11)</sup>.

아라비아 남성 여성의 드레스 스타일은 수 천년 동안 변화가 없었고 항상 발생되고 있는 기후 변화와 환경에 적합하도록 가볍고 헐렁하게 입었으며, 발한(發汗)을 막기 위하여 옷을 껴입고 있다. 물론 이슬람의 법은 실제적으로는 착용하고 있는 의상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의상이 변화함이 없이 지속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 요인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크게는 첫째 변화가 없는 자연환경, 둘째 변화를 싫어하는 부족 특성 요인의 작용이라고 하겠다. 변화가 없는 환경은 특정의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을 그대로 유지시키게 한다. 특히 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아랍 베두인(Bedouin) 부족은 변화를 싫어하는 집단 중 하나임에 주목하게 한다.

아라비아 여성의 대부분은 외투 위에 베일장식인 부르가를 착용한다. 부르가는 머리와 몸 전체를 감싸는 여러 개의 천으로 된 의상으로 발목까지의 길이와 시야만 트이게 하는 베일을 머리에 타이트하게 매고 있는 이슬람교도 여성들이 착용하는 의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Burkha*, *Bourkha*, *Burka* 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sup>12)</sup>.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얼굴 베일장식을 부르가라고 칭하기도 하며, 아시브(Asayib)라는 작은 장식 고리로 매달고 있다. 부르가는 지역에 따라서는 구슬, 조개껍질, 흰색의 단추로 또는 패넌트, 자수로 장식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부르가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으며, 착용 관습에도 차이가 있다. 미혼여성은 동전이나 자수 장식이 없는 부르가를, 기혼여성은 부르가에 동전과 장식으로 달아 꾸미고 있다. 특히 동전을 부르가에 달아 장식하는 이유는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며 또 결혼지참금을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부의 상징 역할도 하고 있음에 있다.

베두인 부족여성은 사회적 역할로서의 신분표시로 착용하지만 남부지역의 샤마르(Shammar) 부족과 일부 하이자즈(Hijaz) 부족은 착용없이도 외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의 일부 지방에서는 반쪽 크기의 작은 얼굴베일인 부르가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일부 여성은 얼굴 베일인 밀파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용되고 있다<sup>13)</sup>.

아라비아 여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얼굴베일의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밀파 위에 고급의 거즈로 된 베일을 착용한 아랍 에미리트연방의 여성(그림 2), 그리고 금색으로 만든 필박스(Pillbox)모자와 함께 진주로 장식을 한 전통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우디 여성(그림 3),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브베두인(Harb Bedouin) 부족은 은화로 장식을 하고 있는 붉은색의 얼굴마스크인 베일을 착용한다(그림 4). 오만의 베두인 여성은 아사이브 장식 고리로 매달면서 후드와 함께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가하면

10) [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sia/arabia](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sia/arabia)

11) Francis Kennet, *Ethnic Dress, Facts on File*, New York(1994), pp.103-106.

12) Charlotte Calasibetta, *op. cit.* p.64.

13) Frances Kennett, *op. cit.* p.105.



<그림 2> 아랍에미리트 연방 여성의 밀파  
(출처 : *Ethnic Dress*, p.103)



<그림 5> 오만베두인 부족여성의 얼굴 마스크  
(출처 : *Ethnic Dress*, p.109)



<그림 3> 사우디 여성의 마스크  
(출처 : *Ethnic Dress*, p.108)



<그림 6> 오만 여성의 베일  
(출처 : *Ethnic Dress*, p.108)



<그림 4> 하브베두인 부족여성의 붉은 장식베일  
(출처 : *Ethnic Dress*, p.108)

(그림 5), 다른 한편으로는 앞이마에 밴드로 매달아 늘어뜨리는 베일을 착용하기도 한다(그림 6). 예멘 시반(Shiban)지방의 농부의 딸은 검정 머스린으로 만들고 꼭 죄이게 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베일을 하고 있다(그림 7). 시나이(Sinai)사막의 베두인부족 여성은 길이가 허리까지 오는 동건과 체인을 연결하여 만든 베일을 착용하며 (그림 8), 카타르의 베두인 부족 여성은 겹으로 된 가벼운 실크의 술이 있는 베일을 긴 부레아드로 위로 묶어 착용하고 있다(그림 9). 두바이의 베두인 부족 여성은 은색의 거즈로된 머리



<그림 7> 예멘시반 지방 농부 딸의 머리베일  
(출처 : *Ethnic Dress*, p.108)



<그림 9> 카타르베두인 부족여성의 얼굴베일  
(출처 : *Ethnic Dress*, p.109)

쓰개와 뻗뻗한 새틴으로 된 얼굴 마스크 또는 밀파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10).

이런 베일장식을 통해 광대한 지역에서 옛 의상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랍 반도의 베일은 변화가 없음을 인지할 수가 있다.

2. 혼 지역 국가의 생활 문화적 특성

1) 수단

수단은 동부와 서부가 산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지형이 고르다. 북부는 사하라 사막과 광대한 평원이 있으며 서부는 기복이 심한 모래언덕이 있다. 동부



<그림 10> 두바이베두인 부족여성의 밀파  
(출처 : *Ethnic Dress*, p.109)



<그림 8> 시나이 사막 베두인 부족여성의 베일  
(출처 : *Ethnic Dress*, p.108)

의 홍해 접경지역은 산악 지대이고 남부도 거대한 산들이 밀집한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북부에는 아랍계 부족이, 남부에는 비 아랍계 부족이 정착하고 있으며, 이 두 지역은 사회 구조와 문화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부에는 7세기경에 아랍상인들에 의해 전래된 국민의 64%를 점하고 있는 이슬람교도인 아랍계 부족이 주로 정착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이슬람 신봉자들은 모슬렘 법적으로 가족을 형성하며, 샤리아(Sharia)라는 그들만의 법에 따라 다른 종교집단과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수단의 북부에 위치한 누비아(Nubian) 사막에는

부족 간 분쟁이 있던 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약 150년 전에 홍해를 건너온 라샤다(Rashaida) 유목민과 베두인 부족이 정착하고 있다.

베두인 부족은 동부 수단의 유목 원주민인 베자(Beja)부족과 해상권 장악을 위해 무수한 분쟁을 하면서 누비아사막에 정착하였다. 베자부족은 무역거래를 위해 수로 및 목초지를 이용할 경우 경유지 부족들에게 통행료를 지불하기도 하였지만 이동 수단은 주로 낙타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수단의 문화는 아프리카 토착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결합된 문화라고 하겠다.

전통의상은 긴 파스텔 톤의 원피스인 잘라비자(Jalabija), 아랍풍의 사발모양 모자인 타기아(Tagia), 머리를 덮는 긴 옷의 임마(Imma)가 있다<sup>14)</sup>.

## 2) 에티오피아

국토의 대부분이 표준고도 2,000~3,000m의 아비시니아(Abyssinia) 고원이고 동부 소말리아 접경지대는 오가덴(Ogaden) 사막이 펼쳐져 있다.

에티오피아 정교를 믿는 콥트교 부족이 국민의 35%~40%이며 나머지 40%는 이슬람교인 부족으로 되어있다. 콥트교 부족은 고지에 살며, 이슬람교인 부족은 홍해와 인도양 해안 저지에 주로 정착하고 있다. 일찍 기독교로 개종한 고지 부족들은 수 세기동안 험준한 산악장벽으로 외부 세계와는 고립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물자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로 복식과 장식은 환상적인 단순성을 표현하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안 저지의 이슬람교도 부족들은 아라비아, 인도 등과의 교역이나 이들 국가의 일부 부족들의 이주를 통해 외부세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지역에서는 아랍문화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전통복식으로 여성들은 정교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흰 옷을, 남성들은 흰 셔츠와 조드푸르(Jodhpur)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sup>15)</sup>.

## 3) 소말리아 및 지부티

소말리아는 아든만을 사이에 두고 동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과 마주 보고 있으며 인구의 거의 100%가 수니파 이슬람교도이다. 그렇다고 소말리아인은 이슬람교전통 전부를 고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여성들은 푸르다(Purdah : 격리)를 따르지 않으며 또 외출 시 베일을 쓰지 않으며 몸 전체를 가리는 옷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특이하다.

한편 지부티는 홍해연안 만데브(Mandeb)해협에 면해 있는 작은 나라로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사이에 있고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지대이다. 전체 국민의 94%가 이슬람교인으로 아직까지도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 유목부족이다. 다른 이슬람국가들과는 달리 지부티 여성 또한 베일을 두르지 않는다.

전통의상은 남성의 경우 몸에 두르는 치마(Mawhees)를, 여성의 경우 어깨에서 발목까지 완전히 가리는 드레스 형태의 의상을 착용한다<sup>16)</sup>.

## 3. 아랍문화 유산으로서의 혼 지역의 베일장식

수단의 라샤다 지방의 부족은 부족간 가족간 유대가 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과는 결혼도 하고 있지 않으며, 외모나 생활양식이 홍해 건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헤자(Hejaz)지방의 부족들과 아주 비슷하다. 이들 부족들은 아직까지도 동물 떼를 몰면서 사막을 여행하고 있으며 양탄자와 직조로 만든 베두인 텐트에서 야영을 하고 있다.

정통 이슬람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프리카 유목민인 라샤다 부족은 첫째로 성별을 반드시 분리시켜야 하며, 둘째로는 여성들은 항상 베일을 착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특히 베일장식 부르는 눈 바로 아래부터 허리에 이르기까지 오게 하면서 여성 인체의 앞부분을 가리게 하는 무거운 천 마스크이다. 부르는 아라비아와 가장 확실한 연결 증표인 문화유산이라고 하겠다. 특히 사막 유목민 부족들은 이슬람교도의 과거 관습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sup>17)</sup>.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라샤다 부족의 여성

14) [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frica/sudan](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frica/sudan)

15) [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frica/ethiopia](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frica/ethiopia)

16) [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frica/somalia and djibouti](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frica/somalia and djibouti)

17) Angela Fisher, *op. cit.* p.269.





<그림 11> 라사다 부족여성의 부르가  
(출처 : *Africa Adorned*, p.273)

은 부르가의 착용은 일상생활의 기본으로 여기고 있다. 베일 속으로 감추고 또 밝은 색상의 아프리카가 있는 베두인스커트와 함께 입는 드레스는 누비아사막의 낙타 목부와는 쉽게 구분이 되어진다. 라사다 부족 소녀들은 5세만 넘으면 반드시 부르가를 착용해야 하는데, 비록 식사할 때 불편할지라도 부르가를 착용해야 한다. 부르가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자기들의 주거공간인 가족용 텐트 속에서만 가능하다. 소녀들은 때로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단추, 페넌트 등을 은실로 베일에 꿰매 달고 있다. 부르가는 통상 매 3년마다 새로운 형태로 바꾸고 있으며 결혼 적령기에 이른 소녀들은 길며 더 장식적인 베일을 착용한다(그림 11, 12).



<그림 12> 라사다 부족 소녀의 부르가  
(출처 : *Africa Adorned*, p.275).



<그림 13> 라사다부족 소녀의 부르가  
(출처 : *Africa Adorned*, p.275)

한편, 베자 지방 부족의 여성들은 밝은 색의 면제품 베일을 하고 있으며, 천성이 과묵하고 부끄러움이 아주 많아 이방인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그들의 생활양식을 더 격리시키고 있다.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수단의 에리트리아(Eritrea) 국경지역의 라사다 부족 여성의 부르카는 여러 줄로 된 진주단추를 스티취하고 은실 자수를 하고 있다. 특히 진주 단추의 스티취는 아라비아와의 무역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예가 된다고 하겠다.

결혼식에서의 라사다 신부는 얼굴을 거의 가리는 부르가 형태의 아루세(Aruse)<sup>18)</sup>라 칭하는 베일장식을 착용한다.



<그림 14> 라사다 유목민 여성의 얼굴베일  
(출처 : *Ethnic Dress*, p.108).



<그림 15> 라사다 신부의 아루세  
(출처 : *Africa Adorned*, p.276)

이 아루세는 코와 이마를 가리고 내다볼 수 있도록 눈에 두개의 트임이 있고, 트임의 양 끝에 금화(金貨)로 장식을 하였다. 신랑으로부터 받은 한 쌍의 긴 은팔찌는 새로운 신분에 대한 표시이며 일생동안 보물로 간직한다<sup>18)</sup>(그림 15).

에티오피아 남동부 하렐(Harer)은 중요한 무역 중심지로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와 연결되어 있으며 소말리아와는 육로로, 아랍국가와는 해로로 범선을 이용한 연결을 갖고 있는데 이 지방의 부족으로 에티오피아 최대부족인 오로모(Oromo) 부족은 라사다 지방 부족과 베자 지방 부족과 마찬가지로 아랍과 밀접한 연결을 갖고 있어 베일 양식 또한 유사한 부르가를 착용하는데 색상이 밝은 색 톤을 하고 있다<sup>20)</sup>.

외부세계와 격리를 지속하고 있는 한 에티오피아의 장식품은 단순성을 유지하고 기본적으로는 옛 기독교문화로 회귀할 뿐이다. 그러나 해안을 따라 거주하는 이슬람교도의 문화는 이런 장식품이 아라비아, 이란 또는 인도로부터 수입했는지 또는 다른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고 디자인을 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외국 스타일과 기교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말리아와 자부티는 수단이나 에티오피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랍 문화의 강한 영향을 받고는 있



<그림 16> 튀니지 여성 베일  
(출처 : *Africa, Arts & Culture*, p.43)

있지만 자생적인 이슬람 문화의 유산으로 부르가와 같은 형태의 베일을 찾지 못하였다.

베일의 착용은 혼 지역 이외에도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국가인 튀니지와 내륙지방인 니제르에서 볼 수가 있다. <그림 16>은 19세기 및 20세기 초까지도 튀니지의 부유층 여성이 외출시 착용한 베일이다. 이 베일을 아자르(Ajar)라고 칭하는데 중앙부분의 직직한 색상 부분은 밖을 내다 볼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여성의 정숙함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21)</sup>.

<그림 17>은 니제르의 에어산악(Air Mountain) 지방 투아레그(Tuareg) 부족 남성이 착용한 베일로 얼굴과 온 몸을 가리고 있다. 이 남성은 베일과 함께 타코바(Takouba)라는 칼을 고품질의 가죽 천으로 만들고 있는 칼집에 넣어 착용하고 있으며 물을 들어 만든 가죽주머니도 함께 착용하고 있다<sup>22)</sup>.

북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아라비아 문화가 교류된 증거는 텍스타일, 장신구, 장식, 생활양식 등등 문

18) Angela Fisher, *op. cit.* p.276.

19) Angela Fisher, *op. cit.* p.276.

20) Angela Fishers, *op. cit.* pp.269-270.

21) John Mack, *op. cit.* p.43.

22) John Mack, *op. cit.* p.62.



<그림 17> 투아레그 남성의 베일  
(출처 : *Africa, Arts & Culture*, p.62)

화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도 있다. 이런 증거는 아직까지도 현대의 물자문화에서 쉽게 인식할 수가 있다.

#### IV. 아든만 연안지역의 문화동질성과 베일장식인 부르가

카이저(Kaiser)는 비교문화론 연구함에 있어 복식이 가치가 있는 도구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첫째 복식은 문화 변용(變容)의 개념에 기초하며, 둘째 복식은 확실한 외부 지향적 상징이며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문화측면의 하나이며, 셋째, 복식은 물자문화의 일면을 갖고 있는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sup>23)</sup>.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우디 반도의 이슬람 문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식과 이슬람 문화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혼 지역 문화에서 보이고 있는 복식 중 베일장식이 바로 홍해와 아든만에 접해 있는 양안 지역의 비교문화의 한 보기라는 결론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북 아프리카의 여타 지역에서도 베일을 착용하고는 있지만 특히 이 양안지역에서는 부르가라는 특정 스타일의 얼굴베일을 착용하고 있어 이 부르가가 비교문화의 증명이라고 하겠다.

아라비아 이슬람 문화 복식인 부르가를 혼 지역에서 수용하고 있음은 부르가에 관한 아라비아 문화가 해석하고 있는 정숙성의 동기에서 출발하였다고 하겠다. 흔히 특정문화에 속해 있는 부족의 의상행동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듯이 부르가는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수단으로 정숙성을 상징하는 최상의 복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관행은 반대로 얼굴에 대한 수치심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기준은 더 복합적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베일에 관련 있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해석을 조명해 보면 의상의 한 항목으로서의 베일의 착용은 다면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체의 일부분을 공개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에 따라 아주 다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여성의 발, 아랍 여성의 얼굴, 투아레그 부족 남성의 입 등이 만약 공개적으로 내보였다면 이는 신체의 일부분에 대한 음탕함으로 여겼을 것이다. 물론 이런 사실은 종교적인 가치에 더 연관을 갖기도 한다. 이슬람교의 철학은 성의 분리를 촉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성 우월 철학은 여성의 인체는 반드시 감싸야 하는 그런 사상을 기저로 하고 있다. 비록 이슬람의 성전인 코란(Koran)에는 베일에 관한 명령이나 규칙이 없지만 남성을 유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믿고 베일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sup>24)</sup>.

혼 지역도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은 부족들이 형태가 같은 부르가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18>은 은실로 수를 놓고 뚱뚱, 단추, 은구슬로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라사다 지방의 베두인 부족의 참으로 멋진 얼굴 베일인 부르쿠(Burqu)이다. 이 부르쿠는 바로 이슬람 복식을 지속해서 보존하고 사용하는 문화영향의 증명인 것이다. 특히 아라비아 문화 특성 중의 하나인 기하학적 무늬를 <그림 12> 및

23)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Macmillan Publishing Co(1985), New York, pp.418-419.

24) Fertile Bishop & Gilliam M., In view of Veil : Psychology of Clothing in Saudi Arabia, *Journal of Home Economics*(1981), 73(4) pp.24-26.



<그림 18> 라사다 베두인의 부르쿠  
(출처 : Africa, Arts & Culture, p.16)

<그림 13>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부르가에 동전 진주 등 같은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있음도 아라비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증명이다.

이런 문화적 영향에 더하여 자연환경에도 적합한 요인이 작용함으로써 지속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자연환경은 지리적인 위치의 이유로 외부와의 접촉기회의 차단을 둘 수도 있고 또 모래 폭풍, 모래 투성이의 바람 돌풍, 강한 태양광선으로부터 얼굴과 눈을 보호해야 하는 사막 환경이라는 특징을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막 환경을 갖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 부족은 모래폭풍기간 동안을 제외하고는 베일을 착용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도 있다.

## V. 결 론

역사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또 인위적으로도 다른 두 문화가 교류됨에는, 여러 가지 위험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는 속로보다는 비교적 위험제약이 덜한 해로에 의한 무역교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무역교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모험심, 탐험심의 결과로 얻어진 문화교류이다.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문화를 서로 수용하게 되고 수용된 문화유물이 특히 생활문화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으며, 생활 문화 유물은 주로 복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곧 복식문화를 통한 인류문화의 교차를 엿 볼 수 있

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아프리카 혼 지역에 대한 아랍문화의 전파는 물론 역사적으로는 사라센 제국이 8세기 전반에 무력으로 침략한 시대도 있지만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연스런 교류가 그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그 유물이 베일 장식인 부르가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베일장식인 얼굴 가리개를 부르가, 밀파, 마스크 등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혼 지역에서는 부르가, 부르쿠 등의 표현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고는 있다. 그렇지만 얼굴가리개라는 특징은 양 지역 모두가 동일하다. 물론, 얼굴가리개인 부르가의 착용과 스타일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형식과 기하학적 무늬, 동전, 진주 등으로 부르가를 장식하고 있음에서 아라비아의 부르가와 혼 지역의 부르가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것에 근거하여, 혼의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혼 지역과 아라비아 지역은 문화의 동질성이 있다는 결론을 유도할 수가 있다.

부르가의 착용은 이슬람이란 종교적인 영향에 의한 생활문화의 유사성에 더하여 비슷한 지리 환경적 특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전통문화가 무역, 종교, 이민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요소의 힘으로, 복식을 착용하는 방법과 복식에 부여하는 의미에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그 영향에 의한 변화를 찾아 볼 수가 있으며, 이 이상 국경 너머에 있는 다른 문화와는 고립되지 않을 뿐더러 어느 부족이던 복수의 문화와 혼합하거나 서로 밀접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화현상을 연구자는 아프리카의 혼 지역을 통해 조명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혼합은 인간문화에 관한 인류학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문화사이에서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문화의 동질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비즈니스, 정치, 미디어, 전자 등과 같은 네트워크적 연결이 있는 현재의 세계는 많은 국가들이 축소된 의미인 글로벌 마을(Global Village)화 되고 있음에 주목한다면 전통문화로서의 복식문화 연구를 함에는 많은 새로운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문숙, 홍인숙 (2000). 아프리카복식의 지역별 특성 비교연구,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3(2).
- 김문숙 (1999). 구슬 형태의 상관성을 통한 아프리카의 전통구슬 및 구슬장식품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2(1).
- Angela Fisher (1984). *Africa Adorned*, Harry N Brahmans, Inc.
- Charlotte Calasibetta (1975).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Fairchild Publications, Inc., New York.
- Fertile Bishop & Gilliam, M. (1981). In view of Veil: Psychology of Clothing in Saudi Arabia, *Journal of Home Economics*, 73(4).
- Frances Kennett (1994). *Ethnic Dress*, Facts on Files, New York.
- Frank Willett (1991). *African Art*, Thames and Hudson, New York.
- H. Seyrig (1934). *Bas reliefs monumentaux de Temple de Bel a Palmyra, dans Syria* IV.
- Jehan S. Rajab (1989). *Palestinian Costume*, Kegan Paul International, London
- John Mack (2000). *Africa, Arts and Culture*, The British Museum Press, London.
- John Picton & John Mack (1993) *African Textiles*, British Museum Press, London.
- Moon-Sook Kim and Shin-Ae Moon (2000). A Study on Embroidery of Palestine Costume, *IJCC*, Vol. 3 No. 2,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 M. L. Damhorst, K. A. Miller & S. O. Michelman (1999). *The Meanings of Dress*, Fairchild Publication, New York.
- Morris Jastro (1921). *Veiling in Ancient Assyria*, *Revue Archeologique* XIV.
- Robert Harrold (1989). *Folk Costume of the World*, Blandford Press, London.
- Susan B. Kaiser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Macmillan Publishing Co., New York.
- Suzanne Preston Blier (1998). *The Royal Arts of Africa*, Harry N Abrams, Inc. New York.
- [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frica/sudan](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frica/sudan)
- [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frica/ethiopia](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frica/ethiopia)
- [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frica/somalia](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frica/somalia) and [djibouti](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frica/djibouti)
- [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sia/arabia](http://aceiu.unesco.or.kr/aceiu_data/asia/arabia)